강원영상위원회
GANGWON FILM COMMISSION
www.gwfilm.kr

보도자료

배포: 2019년 6월 19일(수) | 보도: 2019년 6월19일(수)~6월20일(목)
본문 2쪽, 붙임 1쪽 | 담당 : 기획사업팀 정민서
전화: 033-240-1379 팩스: 033-240-1374 이메일: gwfilm33@daum.net

‘제3회 찾아가는 영화토크’ 감독 추상미를 만나다
도민 160여명과 감동 나누며 뜨겁게 마무리!

- 강원영상위, 배우 겸 감독 추상미 초청해 관객과 이야기 나누는 영화토크 행사 성료
- 도민 160여명 참석해 <폴란드로 간 아이들> 상영 후 추상미 감독과의 이야기 나눠
- 아동 관련 구호·복지 기관, 탈북청소년, 교육자 등 적극 관심, 전쟁의 상처 연대

□ 강원영상위원회(위원장 방은진)는 지난 6월 17일(월) 저녁 7시 CGV 춘천 명동에서 ‘찾아가는 영화토크(이하 영화토크) - 감독 추상미를 만나다’를 개최하고 뜨겁게 막을 내렸다.

□ 이 날 행사에서는 굿네이버스 강원본부, 춘천 YMCA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, 해솔직업사관학교, 강원도교육청 등의 아동 관련 구호·복지 단체, 교직자, 탈북 청소년들을 비롯 도민 160여명이 참석해 영화 <폴란드로 간 아이들>을 관람하고 감동을 함께 나눴다.

□ 영화 상영 후에는 관객과 추상미 감독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. 추상미 감독은 영화 제작에서 겪은 뒷이야기와 폴란드 방문 당시 마주하게 된 전쟁의 참상을 설명하며 참석한 관객들과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.

□ 추상미 감독은 “제2차 대전을 치르며 폴란드가 겪은 전쟁의 상처를 되짚어보면 그 역사가 깊다. 그 당시, 한국전쟁고아를 마음으로 품어 준 것은 뼈아픈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다.”며 영화가 주는 메시지로서 ‘상처의 연대’를 해석해 관객과의 대화를 훈훈하게 마무리했다.

□ 춘천 시민 이정화님은 “영화가 끝난 마지막까지 눈을 떼지 못했는데 여전히 감동이 가시지 않는다, 추상미 감독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화를 관람할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다.”고 함께한 소감을 밝혔다.

□ 이번 영화토크의 진행을 아우른 강원영상위원회 김성태 사무국장은 “전쟁으로 인해 상처 입은 이들의 아픔을 공유하고자 마련한 자리인 만큼 도민 분들이 적극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.” 고 말했다.

□ 영화 <폴란드로 간 아이들>은 1951년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고아 1,500명과 폴란드 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실화바탕의 다큐멘터리다. 감독과 탈북 배우 이송이 직접 폴란드로 떠나 흔적을 쫓아 기록하는 여정을 담고 있다.

□ 이번 영화토크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기념해 한국전쟁으로 인해 상처 입은 이들의 아픔을 공유하고자 마련한 자리로, 역사 속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던 실화를 담은 <폴란드로 간 아이들>(2018)을 상영한 후 감독 추상미와 관객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로 꾸며졌다.

□ 한편, ‘찾아가는 영화관’ 사업 일환의 도내 지역민의 영상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‘찾아가는 영화토크’는 지난 해 보다 담론 형성을 위한 시즈널 이슈, 사회 이슈에 맞춘 영화들을 선정, 상영과 함께 초청 게스트와 관객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도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강원영상위원회 기획사업팀 정민서 사원(☎033)240-137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 사진 자료

찾아가는 영화토크
세번째
감독 추상미를 만나다
CGV 춘천명동
2019.6.17(월) 19시
폴란드로 간 아이들
"그 아이들에게
우리가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"
게스트 감독 추상미